

'민무늬' 책 시대에 '빛살무늬' 책 지원하는 부호쿤스트 재단

가장 아름다운 독일 책 등 시상해

이정모 | 유로코리아커뮤니케이션즈 유럽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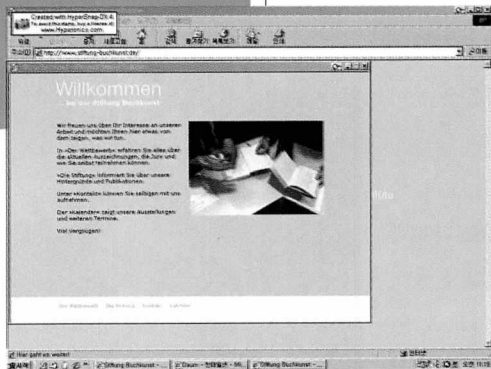
중고등학교 시절 국사 수업 두번째 시간쯤 되면 누구나 '빛살무늬토기'란 멋진 단어를 노트에 받아적게 된다. 이 토기가 만들어진 때는 신석기 시대란 아득한 옛날이다. 그 용도는 곡식을 담아두는 것이었다던가? 그런데 곡식을 담아두는 것뿐이었다면 그 시대를 살던 이들이 굳이 수고스럽게 장식을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이 무늬에는 무언가 주술적 의미가 있었을 것 같다. 책은 마음을 살찌우는 곡식을 담아놓은 그릇이 될 수도 있다고 주 제넘게 말해본다. 그 책이 단지 지식 전달이라는 기능에만 머물지 않고 읽는 이에게 책 자체가 아름답다는 느낌도 들 수 있도록 서체, 편집, 인쇄, 제본, 그 모든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것은 책을 빛는 이들의 올곧은 모습일 것이다. 그 까마득한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그릇 하나를 만들면서 거기에 빛살무늬를 하나하나 새겼던 것처럼.

빛살무늬 다음에 나타나는 그릇은 '민무늬 토기'다. 청동기를 이용할 줄 알았던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곡식을 담아놓을 토기에 무늬를 새겨놓을 만큼 한가하지 못했나 보다. 책도 그렇다. 예전의 아름다웠던 책들은 세상이 바빠 질수록 점점 밋밋한 모습을 띄게 됐다. 책은 점점 단순히 정보를 담는 도구가 됐고 급기야는 e-북이라는 극도로 단순화된 모습이 됐다.

'가장 아름다운 독일 책' 등 시상해

이런 '민무늬' 책 시대에 '빛살무늬' 책을 만들기를 권하고 상을 주는 재단이 있다. 그것

독일의 부호쿤스트 재단은 '그림, 문자, 인쇄, 제본 등 모든 분야에서 아름다운 책'을 지원한다. 사진은 부호쿤스트 재단의 홈페이지.



은 바로 부호쿤스트(책예술) 재단으로, 독일 서적상협회, 독일도서관협회, 독일인쇄인협회, 독일의 양대 도서전 개최지인 프랑크푸르트와 라이프치히시 등이 출자해 1965년에 설립했다.

이 재단의 목적은 책이 정보전달이라는 단순한 용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림, 문자, 인쇄, 제본 등 모든 분야에서 아름다운 책'을 만들어내는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재단은 매년 심사위원을 구성해 각 출판사로부터 출판받은 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독일 책' '부호쿤스트재단상' 그리고 32세 이하의 작가들이 만든 책을 대상으로 하는 '젊은 책 제작자 지원상'을 선정한다. 이중 '가장 아름다운 독일 책'은 문학, 학문서적, 아동도서, 서점에 없는 책 등 10개 분야에 각 분야당 3~6권 정도 선정해 시상하고, 매년 봄 라이프치히 도서전에서 전시한다.

올 봄에 시상한 2000년도 '가장 아름다운 독일 책' 1등상은 2000년 하노버 엑스포 독일관을 다룬 사진집 《독일관(Deutscher Pavillion)》에, 2등은 브록하우스가 펴낸 《극(劇)대사 사전(Wörterbuch der Szenesprachen)》에, 그리고 3등은 지난해에 향년 75세의 나이로 사망한 독일시인 에른스트 안

들의 시집 《실제적인 삶으로부터(aus dem wirklichen Leben)》에 주어졌다.

황금문자상 수상한 《햇불》 주해사전

독일 출판사와 서점이 만나는 장소가 3월의 라이프치히 도서전이라면 전세계출판사가 서로 만나는 장소는 10월의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다. 부호쿤스트 재단은 10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위한 또 다른 상을 시상하고 있는

데, 그것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상이다. 올해는 35개국에서 700종 이상의 책을 출품했다. 이 책들은 3월 라이프치히 도서전에서 전시됐고 10월 프랑크푸르트 도서

전에서 시상됐다.

올해 최고상인 '황금문자상'은 1899년부터 1936년까지 발행된 잡지 《햇불(Die Fackel)》의 주해사전에 돌아갔다. 심사위원들이 밝힌 시상 이유는 '책의 전통과 현대의 요구를 결합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 사전은 오스트리아 아카데미 출판사가 제작했다. 그밖에 한 개의 금상, 두 개의 은상, 다섯 개의 동상을 수상한 나라는 브라질, 독일, 일본, 네덜란드와 스위스 그리고 체코와 베네수엘라. 이 책들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과 전국의 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전시되는데, 외국의 도서전 주최자들이 이 책을 전시하기 원할 경우 재단은 무료로 대여해주시기도 한다. 부호쿤스트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www.stiftung-buchkunst.de이다. 이 사이트는 아름다운 책에 대한 노자(老子)의 경구로 시작한다.

"아름다운 책은 나비와 같다. 손에 살며시 얹아 우리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유인하며 하늘을 어렵듯이 깨닫게 한다." ■